“일찍 나왔는데 택시 탈 판”…시내버스 노선 개편 출근길 ‘혼선’

9년만 변화에 전남광주 곳곳서 혼란

환승·도보 부담 가중 불만 목소리↑

일부 정류장 신규·옛 노선표 혼재도

이틀간 민원 687건…연말까지 조정



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성여고 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시내버스 노선 안내 요원을 통해 변경된 버스 노선을 안내받고 있다. /조영권 기자

“안 그래도 복잡할 것 같아 평소보다 20분은 일찍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걸려서 그냥 택시 타고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퇴근도 새로운 버스를 타고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9년만에 전면 개편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운행 후 첫 평일인 2일.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노선의 폐지·변경으로 평소 이용하던 버스를 찾지 못하거나 환승·도보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일부 정류장에서는 개편 이전 노선표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변경 과정에서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7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 새롭게 부착된 노선표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바뀐 노선을 한참 들여다보거나 도착한 버스 기사에게 행선지를 묻기도 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찍거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바뀐 노선과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버스가 도착한 뒤에도 안내요원에게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거나 차량 옆면에 부착된 주요 경유지를 살펴본 뒤 탑승하는 승객들도 적지 않았다.

장모(70대)씨는 “평소 타던 02번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며 “버스 번호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타야 할 버스를 찾았다”고 말했다.

노선 변경으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환승이 불가피해졌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주요 환승 거점인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만난 이모(50대·여)씨는 “예전에는 환승할 버스가 3-4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다”며 “버스를 놓치면 뒤늦게 택시를 타고 가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존 노선번호 앞에 붙었던 ‘진월’, ‘첨단’ 등의 지역명이 사라진 것을 두고도 “버스 번호와 내리는 정류장만 기억하면 되니 오히려 편리하다”, “숫자만 있으니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한 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없어서 너무 헷갈린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정류장에서는 개편 이전 노선표가 철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실제 북구 북부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는 개편 전후 노선 안내판이 나란히 붙어 있어 혼란이 이어졌다. 같은 정류장에 서로 다른 운행 정보가 게시되면서 노선 개편으로 이제는 오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계속된 혼란에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버스 노선을 개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완지구 주민인 한모(30대·여)씨는 “애초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이 2028년 말에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버스 노선 개편이 무슨 실익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첨단 주민인 김진욱(33)씨도 “학교나 아파트 단지 앞으로 오던 버스가 사라져 환승 없이 시내로 가려면 큰길까지 20분은 걸어야 한다”며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에 버스 노선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만든 노선 같다”고 지적했다.

시행 사흘 차 곳곳에서 나온 불만은 민원 전화로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버스 노선 개편 후 이틀 동안 총 687건의 민원이 빗발쳤으며, 이날 오전 접수된 민원 전화만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지난달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제 운행 상황과 시민 민원 등을 분석해 환승 불편과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노선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사회부

금타 잇단 사망사고…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지난달 31일 노동자 끼임 사고

2024년 곡성·광주서 3명 사망

안전관리 책임 규명·점검 촉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10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A(30대)씨가 설비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전날 오전 12시21분께 숨졌다.

금속노조는 사고 당시 A씨가 압연공정의 대형 롤러 설비인 Z-CAL 앞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끼임·추락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단체들은 금호타이어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제시한 사고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곡성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같은 해 7월 광주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고무 적재물에 깔려 사망했으며, 8월에는 외주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때마다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안전관리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설비만 조사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장 전체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시설, 작업공정,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또한 이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안전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광주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수사를 이관했다. /윤찬웅 기자

무면허 여중생·차 빌려준 차주 동시 입건

차량 돌려받지 못하자 도난 허위 신고

무면허 여중생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여중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B(10대)양을 각각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운전면허 없이 A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6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자동차 제조사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찾아 나섰다.

A씨는 신고 당일 북구 운암동에서 B양과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B양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나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찬웅 기자

16t 살수차 신호등 ‘쾅’…60대 동승자 숨져

전남광주 목포에서 16t급 살수차가 승용차를 피하려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동승자가 숨지고 20대 여성이 다쳤다.

2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2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교차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16t급 살수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살수차는 교차로에 진입한 뒤 오른쪽에서 다가오던 B(20대·여)씨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던 중 신호등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살수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C(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B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B씨 모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